전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총력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교육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17일 전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급식 농식품의 안전관리,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합동 검수·점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NON-GMO 제품 생산업체 점검 등에 합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원산지 식별요령 안내, 농식품 안전관리 교육 지원에도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안정적 공급망 확충으로 학생, 학부모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합동관리체계가 구축돼 전남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현장학습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여수시 소재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 '전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현장학습'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3일 호주, 24일에는 중국으로 떠난다.

이번 글로벌현장학습에는 호주 6개 영역 18명, 중국은 2개 영역 26명이 참여하게 되며, 학교장 추천, 영어시험, 원어민면접 등을 통해 선발됐다.

글로벌현장학습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도 지난 5월 선정돼 호주 브리지번에서 18명의 학생이 12주 동안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호주사업단은 영어교육(6주), 직무교육(2주), 산업체인턴십(4주)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현지취업을 목표로 운영하는 후(後)취업형 글로벌 체험학습이다.

또한, 중국 북경에서도 5주 동안 26명이 참가해 현장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는 전라남도교육청 자체 사업이며 올해 처음 실시한다. 중국사업단은 선취업형 글로벌현장학습으로 국내 취업(CJ푸드빌 정직원 8명, 인턴직원 18명)이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글로벌현장학습에서 돌아온 후에는 국내 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선(先)취업 후(後) 글로벌현장학습 모형이다.

광주 대표팀,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융합과학 고등부 대상

광주시교육청 대표팀이 제37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고등부문 최고상인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비롯해 참가팀 전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광주시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8월 3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렸으며 공식 대회 결과는 지난 16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문으로 발표됐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력을 겨루고, 상호교류를 통해 과학적 흥미를 고취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 과학탐구대회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했다.

대회는 융합과학, 과학토론,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의 4종목 11부로 치러졌고, 17개 시·도 학생 대표 310명이 참가했다. 광주는 2종목(과학토론, 융합과학)에 6팀 12명이 참가해 대상 1팀(광주과학고 박미리내·이다인), 은상1팀(송원초 김민주·김재희), 동상 2팀(수완하나중 노재은·강민준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세진·류재우), 장려상 2팀(마재초 송연주·류다인 / 운남중 김예담·천연수)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광주 과학교육 위상을 드높였다.

순천대,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국립 순천대학교가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신규 시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활용 능력을 인증하는 국가공인시험으로, 현재 국내 53개 지역, 해외 82개국 23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행기관에 선정된 순천대는 10월에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연 6회 순천대 캠퍼스에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순천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순천제일대 등 순천·여수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600여 명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광주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전국FFK 전진대회 개최

한국 농업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농업계 고등학생 축제인 '제48년차 전국 FFK(Future Famers of Korea) 전진대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주최로 발명 특성화고등학교인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다.

미래 영농인 육성을 위해 '2030 함께 꿈꾸는 우리농업, 함께 만드는 미래농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전국 66개 농업고등학교에서 학생 선수 2000여 명이 참가해 농·생명과학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겨룬다.

FFK전진대회는 1972년부터 매년 지역별 경진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2019년 제48년차 대회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FFK연합회, 한국농업교육협회가 주최하고, 광주FFK·광주자연과학고 주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농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중등 농업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48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농업인력 양성에 공헌함은 물론 농업계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주에선 2005년에 34회 대회에 이어 14년 만에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농업지식과 기술을 겨루는 전공경진 분야와 실무능력을 겨루는 기능경진 분야, 과제이수를 통해 경영능력과 연구 성과를 겨루는 과제발표 분야, 농업계고 학생들의 농업관련 상식 수준을 겨루는 골든 벨과 축제인 예술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연수

광주시교육청이 17일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 학부모와 교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발대식 및 연수'를 개최했다.

광주 관내 5개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책 이해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과 연수에는 관내 5개 특수학교 학부모지원단이 한자리에 모여 특수학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녀의 꿈과 끼를 찾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은혜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한 학부모지원단 역할 인식과 진로체험 활동 실습을 통해 학부모지원단으로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은 앞으로 진로체험활동 지원, 재능기부, 자유학기 활동 보조 및 행사 지원 등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김수강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올해 4년째가 되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기뿐만 아니라 일반학기로 연계되어 타 학년까지 확대·발전하고 있다"면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특수학교도 중학교처럼 자유학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